

# 전남교육청, 네팔과 교육 교류 나섰다

### 성커라폴 시 · 엄홍길휴먼재단과 업무협약 현지 공립학교 학업 성취도 향상 위한 협력



전남도교육청이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을 계기로 네팔 성커라폴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교육·문화 교류의 물꼬를 텄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오후

시장, 엄홍길 상임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커라폴 시에 있는 공립학교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 교육과 교육·문화 교류, 봉사활동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전남도교육청은 성커라폴 시에 있는 공립학교에 교육·문화 교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성커라폴 시 소재 공립학교의 교육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성커라폴 시는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엄홍길휴먼재단은 두 기관의 교류 및 봉사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이런 내용의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대표 1인 씩 참여하

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성커라폴 시에 '네팔 전남휴먼스쿨'을 세우고 3자 간 업무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네팔과 교육·문화 분야 글로벌 교류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네팔과 한국의 거리가 4,000km나 되어 오고 가기가 쉽지 않지만,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남도교육청과 성커라폴 시, 나아가 대한민국과 네팔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식을 가졌다.

'네팔 전남휴먼스쿨'은 전남도교육청이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짓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될 네팔 현지학교다.

허성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구축

광주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지원센터는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상설교육장 및 에듀파인 콜센터 운영, 유치원별 맞춤형 현장밀착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상설 전담팀을 구성했다.

2019년 총 158개의 사립유치원 중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24개원 및 에듀파인 1단계 도입을 희망했던 45개원 등 총 69개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2020년 에듀파인 2단계 전면 시행으로 에듀파인을 미도입한 89개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신청을 완료했고 나이스 사용자 정보 등

록 및 인증서 발급·등록도 마쳤다. 시교육청은 1월 중 재정 지원을 통해 2020년 에듀파인 2단계 도입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접속환경을 개선하고자 컴퓨터 및 모니터(유치원당 2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원격업무지원시스템(e-VPN) 접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강윤석 과장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게끔 하겠다"며 "평일 저녁시간 및 공휴일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원센터'를 운영해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전남교육연수원, 중등 전문적학습공동체 리더 직무연수 운영

### 수업혁신·리더십 함양 연수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현장 안착 기대

전남교육연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남교육연수원 예지관에서 중등 교사 33명을 대상으로 '중등 전문적학습공동체 리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수업혁신과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착을 위해 리더의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이해,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수업혁신, ▲수업성찰과 수업나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전문적학습공동체 리더의 역량과 역할, ▲미래교육과 교사의 역할, ▲교사의 효능감과 전문성 순으로 이루어지며, 나눔·토의토론 방식을 확대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최광희 장학관은 2020 전남교육의 철학, 인간·미래·민주·혁신의 의미를 강조하며,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수업과정연구연구소 신을진 대표는 "수업에서의 자기 발견, 가치 발견, 유연성 증가를 통한 교사의 성장이 수업 성장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송지중 오연희 선생님은 "수업철학을 기반으로 한 수업방법과 기술이 아니면 진정한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목포정명여중 정원선 선생님은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



임을 깨달았으며, 연수에서 학습한 내용을 동료교사와 협력하여 반성적 실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연수원은 앞으로도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수업혁신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보성 학생들, 책 읽고 토론하니 독서력 UP

보성공공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교실과 청소년 인문 독서·토론 동아리를 운영한다.

먼저 겨울 독서·토론교실은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초·중·고 학생 4~6학년 15명, 중학생 1~3학년 26명을 대상으로 2개 반을 운영한다.

수업 주제는 '우리가 환경을 지켜줄까'로 독서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플라스틱 섬' '플라스틱 오염' 책을

읽고 화전문마토론, PMI토론, 원탁토론 등 다양한 토론 방법으로 플라스크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주제로 삼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청소년 인문 독서·토론 동아리는 다양한 주제의 책임기를 통해 독서력 향상,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 중·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해 1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보성=인구일 기자

## 사서가 원하는 단계별 도서목록 제공

### 영광공공도서관, 3단계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 제공

영광공공도서관은 7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Library Start Book)을 배부한다.

라이브러리 스타트는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단계별 권장도서 목록을 선정하여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첫발 내딛기 사업이다. "시작, 중간, 높은"의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 권장도서 30권이 수록되어 있다.

방학을 맞이하여 자료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권장도서를 추천하여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책을 읽은 후에는 스티커까지 받을 수 있

어 책 읽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지난해 라이브러리 스타트 단계별로 100권을 다 읽은 학생들에게는 완주증과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장혜란 관장은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에 추천된 좋은 도서를 통하여 아이들이 책 읽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광공공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겨울 독서·토론교실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어린이



자료실 서가를 재배치하여 주제별, 작가별, 기념일 등 주제 도서를 기회 전시하는 북큐레이션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안 안좌중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우수상

안좌중학교는 국정과제인 예술활동 확산 및 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련된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이 주관한 '2019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예술교육 우수학교부문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좌중은 2014년 교육부와 신안군의 지원으로 전교생이 1인 1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해왔으며 201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 참가로 금상과 은상 등을 수상하여 전교생 20~30명의 작은 학교에서의 쾌거를 거두어 지역사회에 자랑이 되었다.

